

인간 정신의 ‘도착성’과 죄의식으로서의 공포: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김 선 옥
(원광대학교)

Kim, Sun-ok. “Perverseness of the Human Psyche and Horror as Guilt in Edgar Allan Poe’s ‘The Black Ca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1-2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bnormal human psychology called ‘perverseness’ and the action of guilt in Edgar Allan Poe’s “The Black Cat” from the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meeting the ideal masculinity required in the 19th-century patriarchy, the narrator of “The Black Cat” performs excessive masculinity and pursues the desire to violate the law of the Symbolic order in a perverted way. However, after committing a ‘sin’ of abusing and killing his beloved cat he does not remain a Lacanian subject pursuing forbidden desires at any cost and pain. Instead, caught up in the fear caused by the unconscious guilt after facing the second cat that seems to be possessed by the first cat’s ghost, he becomes almost a neurotic, eventually killing his wife and destroying himself. Although he shows psychopathic tendencies in carefully hiding the body after murdering his wife, the strange urge to expose his crime can be seen as a self-destructive punishment given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Superego, the agent of conscience and morality, and the aggressive and impulsive Id. In short, the ‘perverseness’ revealed by the narrator of “The Black Cat” not only has a trait of the Lacanian desire for ‘the Thing’ existing beyond the Symbolic order, but also contains a strong impulse to punish the subject himself through the unconscious guilt, which represents the complex and dynamic human psyche explored by Freud. (Wonkwang University)

Key Words: Edgar Allan Poe, The Black Cat, perverseness, guilt, horror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며

1843년 출간된 「검은 고양이」(“The Black Cat”)와 「고자질하는 심장」(“The Tell-Tale Heart”)은 인간 내면의 도착 심리와 광기를 심도 있게 탐구한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대표작이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단편소설의 요건으로 포가 강조했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한 공포의 정서가 강렬하고 압축적으로 구현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검은 고양이」는 공포 효과를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몰입 효과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광기 증세를 보이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교살당한 검은 고양이와 불길하고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띠는 두 번째 검은 고양이, 그리고 지하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과 시신 매장 등은 이 작품에 공포 분위기를 더한다. 특히 화자에 의해 죽임당한 고양이 플루토(Pluto)의 혼이 썩워진 듯한 두 번째 고양이는 현실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는 검은 고양이에 대한 서양 전래의 미신과 결합되어 공포와 긴장감을 더한다. 이러한 공포 효과를 통해 「검은 고양이」는 인간 내면의 비정상적 심리라 할 수 있는 ‘도착성’ 혹은 ‘비뺏어짐’(perverseness)¹을 인상 깊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제프리 메이어스(Jeffrey Meyers)의 언급대로 「고자질하는 심장」과 더불어 인간의 복잡한 ‘죄의식의 심리’(137)를 본격적으로 탐색한다.

「검은 고양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아내를 살해한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화자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방식과 그 심리적 상태에 주목한다. 화자의 서술 방식에 대해 여러 평자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자기기만적인 화법”(Brett Zimmerman 49)이거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범이 솔직함을 가장해 자신의 행위를 교묘하게 떠벌리는 위장된 서술이라고 언급한다(Vicki Hester & Emily Segirs 179). 후자와 관련하여 빅키 헤스터와

¹ 포가 작품 속에서 언급한 ‘Perverseness’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인간 내면에 깃든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분석학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성적 도착성(perversion)과 큰 관련성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의 번역으로 문장에 따라 ‘도착성’과 ‘비뺏어짐’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에밀리 세거스는 솔직함과 객관성을 가장하며 자신의 악행을 상세히 설명하는 화자야말로 로버트 해어(Robert D. Hare)가 제시한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76)². 화자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시각 못지않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비정상적인 심리를 억압된 여성성이나 좌절된 남성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앤 블리스(Ann V. Bliss)는 여성적 특성이 뚜렷한 남성 화자가 ‘부적절한’ 여성성을 수용 가능한 남성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는 “과잉 남성성”(hypermasculinity 96)을 수행한다고 언급한다. 클라크 모어랜드와 카림 로드리게즈(Clark T. Moreland & Karime Rodriguez) 역시 화자 내면의 공포는 스스로 인지하는 이성 상실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의 상실에서도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포가 열정과 본능에 완전히 굴복하는 남성을 보여줌으로써 합리적 이성 능력이 남성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적 젠더 구성을 해체한다고 주장한다(204). 도끼로 아내를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시도하는 모습과 같이 “살인을 포함한 자신의 극단적 잔학 행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김은형 50) 19세기 가정폭력범으로서의 화자의 모습만 떼어 본다면 이러한 진술은 타당성이 있지만 서술하는 현재 시점까지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공포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스스로의 범죄를 폭로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은 더 복잡한 차원에서 화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화자의 폭력과 범죄 행위를 단순히 사이코패스 심리나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폭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위반하려는 근원적인 욕망과 그것을 억제하고 처벌하려는 양심의 갈등을 통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에 앞서 인간 무의식을 깊이 있게 탐색한 이 작품의 복잡한 차원을 놓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 고양이」에 대해 진행된 다양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화자의 이상 심리와 인간 행위의 도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² 해어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며 무자비하고” “공감력과 타인과의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양심의 제약 없이 기능하는 사람”으로 살인과 같은 그들의 악행은 정신이상이나 냉혹하고 합리적인 계산속에서 이루어진다(Vicki Hester & Emily Segirs 176 재인용).

포의 작품을 연구한 마리 보나파르트(Marie Bonaparte)나 조셉 우드 크러치(Joseph Wood Krutch) 같은 초기 학자들은 포를 신경증 환자로써 진단하고 그의 작품들을 작가의 억압된 욕망이 회귀하는 텍스트로 분석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인물들의 끔찍한 악행은 그의 근원적인 욕망 상실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이우일, 김종갑 38 재인용).

이우일과 김종갑은 공동 연구인 「에드거 앨런 포와 공백의 사유: 「어셔가의 몰락」과 「검은 고양이」에 나타난 공백과 윤리」에서 이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논의를 발전시켜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드러내는 도착적 욕망의 윤리적 측면을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신분석의 ‘욕망하는 주체’는 언제나 법 너머의 빈 공백의 자리로 다가가고자 하는 주체”(44)이고 금지된 법을 넘어서려는 “잠재적 위법자”(44)이다. 그들은 또한 포의 작품에서 묘사되는 비뿔어짐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의 심리를 포착한 것이고, 상징계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근원적 욕망의 대상인 ‘물’(the Thing)을 향한 욕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정신분석학의 “윤리적 주체”(49)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10)³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 속에서 자식처럼 사랑했던 고양이의 눈을 칼로 도려내고 그의 목에 올라미를 씌워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화자를 사로잡은 이러한 비뿔어짐의 욕망은 금지가 있기에 위반하고 싶은,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하는 주체’의 도착적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 두 학자의 연구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화자가 비뿔어짐에 사로잡혀 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끝까지 가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루토가 죽던 날 밤에 일어난 화재 사건과 두 번째 고양이의 출현을 계기로 그의 심리 상태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우일과 김종갑의 시각을 수용하면서 라캉 이론을 토대로 화자의 비뿔어짐의 욕망을 조명하고, 화재 이후의 그의 심리 상태를 프로이트의 심리구조 모델에 의거하여 이드(Id)와 자아(Ego), 그

³ Edgar Allan Poe, *The Tell-Tale Heart and Other Writings* (Bantam Classic: New York, 1982). 이하 이 작품에서의 모든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기록함.

리고 초자아(Superego)의 갈등으로 분석함으로써 화자를 상징계에 저항하는 윤리적 주체의 모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뒤 양심과 죄의식을 주관하는 초자아와 공격적 성향의 이드가 협력하여 스스로를 처벌하는, 신경증적 공포에 사로잡힌 분열된 주체로 읽고자 한다.

II. 욕망하는 주체와 인간 정신의 도착성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출간 이래 일반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고양이의 눈을 산 채로 도려내고, 목에 올라가미를 걸어 나무에 매달아 죽인 화자의 도착적 행위나 도끼로 아내를 살해하고 벽 속에 시신을 숨기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심리는 어느 한 측면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다. 화자 스스로 언급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애완동물을 보살피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겨 비슷한 성향의 여성과 결혼하여 많은 동물들을 거느린 가정을 꾸렸던 그가 가장 애정을 기울인 고양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과도한 음주이다. 술에 빠져들면서 그의 성향은 점점 난폭해졌고, 동물들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다가 어느 날 그는 “술이 부추긴 악마적 증오”(10)에 사로잡혀 자신의 손에 약간의 상처를 낸 플루토에 과도하게 격분하며 한 쪽 눈을 칼로 도려낸다. 물론 포는 이 작품을 통해 음주가 인간 정신에 끼치는 해악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Cicil 1) 술은 화자의 내면에 형성된 억압과 폭력성, 그리고 도착적 욕망을 일깨운 계기에 불과하다. 음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의 문제점은 다른 심리적 차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도입부에 소개된 화자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술을 통해 발현된 화자의 폭력성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억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유순함과 온정”(8)이 두드러졌고, “부드러운 성향이 너무나 두드러져 친구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8)였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애완동물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19세

기 가부장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온전히 구축하지 못한 남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애완동물과 함께 보내면서 동료 인간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신의와 진실한 애정을 발견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화자가 자유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언어로 지배되는 상징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물과의 관계뿐이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화자가 비슷한 성향의 여성과 일찍 결혼하여 자녀 대신 많은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혼 이후 술이라는 “무절제의 악마”(the Fiend Intemperance 9)에 빠져들면서 그의 성정이 “나쁜 쪽으로 급격한 변화”(9)를 겪었다는 진술로 미루어볼 때 그가 아내와 많은 동물 ‘자식들’을 보살피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가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당위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자는 술을 계기로 가정 내 약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려는 왜곡된 심리를 갖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경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심리적 차원에서 이상적 남성성을 실현할 수 없는 일부의 남성들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성적 과시를 통해 좌절된 남성성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25-27).⁴ 어린 시절부터 여성적 성향이 두드러져 또래집단에서 소외되었던 「검은 고양이」의 화자 역시 가정 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들과 아내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좌절된 남성성을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음주를 계기로 표출하는 이러한 욕망은 자신으로 하여금 한 가정의 이상적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을 요구하는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거역하고 위반하려는 ‘비뿔어짐’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해 점점 난폭해지던 화자는 자신이 한 쪽 눈을 도려낸 플루토가 겁에 질려 자신을 피하자 한 편으로는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죄 없는 고양이를 향해 이 비뿔어짐의 욕망이 찾아왔노라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⁴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존 베이논(John Beynon)이 언급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과도 연관된다. 이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복수의 남성성들(masculinities) 가운데 문화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남성성을 의미하는데, 현실 속에서 이것에 부합하는 남성은 그리 많지 않지만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남성들 대부분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것을 자신들이 따라야 할 이상적 기준으로 받아들인다(13-15).

그리고 나서 끝내 구원받을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까지 나를 몰아넣으려는 듯이 ‘비똥어짐’의 정신이 찾아왔다. 그러나 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이 비똥어짐이야말로 인간 마음의 원시적인 충동들 중의 하나, 즉 인간 성격에 방향을 제시하는 미분화된 원초적 기능 또는 감정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 없이 백번이나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뛰어난 분별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고 싶은 끊임없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And then came, as if to my final and irrevocable overthrow, the spirit of PERVERSENESS. Of this spirit philosophy takes no account. Yet I am not more sure that my soul lives, than I am that perverseness is one of the primitive impulses of the human heart—one of the indivisible primary faculties, or sentiments, which give direction to the character of Man. Who has not, a hundred times, found himself committing a vile or a stupid action, for no other reason than because he knows he should not? Have we not a perpetual inclination, in the teeth of our best judgment, to violate that which is Law, merely because we understand it to be such? (10)

이성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10), 혹은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10) 위반하고 싶은 욕망은 금지가 불려일으키는 전형적인 일탈의 욕망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간 문명은 이러한 원초적 욕망에 대한 금지 위에서 구축되었고, 개인도 이 금지를 내면화하고 상징 질서의 규범을 수용하며 사회적 주체로 구성된다. 그러나 포의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이 사회적 질서와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내면의 도착적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로 이끈다. 인간 심리에 대한 포의 에세이로 봐도 무방한 「비똥어짐이라는 악귀」(“The Imp of the Perverse”)에서 포는 화자의 진술을 빌어 이 비똥어짐이라는 이상 심리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한다. 포는 여기서도 비똥어짐을 “본래 타고난 원시적인 인간 행위의 원리”(an innate and primitive principle of human action 354)⁵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정의하면

⁵ Edgar Allan Poe, *The Works of the Late Edgar Allan Poe* (Clinton Hall: New York, 1850). 이 작품의 텍스트는 온라인 판을 이용했고, 다음 줄에서 인용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서 화자를 통해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은 소망으로 발전하고, 소망은 욕망으로, 욕망은 통제할 수 없는 갈망이 되어 . . . 충족되고 만다”(355)고 서술한다. 여기서 포가 언급하는 비뿔어집은 물론 성적인 의미의 도착성은 아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에 깃든 일탈과 자기 파괴의 욕망을 의미하며 포는 인간 정신 안에 이러한 도착성이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인용된 부분 뒤에서 화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 속에서 “아무 죄 없는 고양이에게 가한 학대를 완성하기 위해”(11) 고양이의 목에 올라미를 씌워 나무에 매달아 죽인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비뿔어집의 욕망은 금지가 있기에 위반하고 싶은,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하는 주체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거세의 위협 앞에 최초의 만족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징계의 질서로 편입하는 인간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백(emptiness)을 마음속에 지닌 채 끊임없는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 욕망은 근원적인 결여와 상징계의 금지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은 어떠한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에 해당한다. 라캉이 언급한 ‘실재’(the Real)는 인간 문명과 주체 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금지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욕망의 대상이기에 상징질서의 바깥에 이 공백으로 존재하고,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상징계 너머의 이 실재를 향한다(Lacan 52).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드러내는 것처럼 금지는 욕망을 창조하고, 욕망은 법이 배제한 실제적 대상 때문에 끊임없이 활성화되며, 금지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욕망을 무한히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상징계의 문화는 집요하게 욕망을 통제하려 하지만 금지와 불가능성 때문에 실재를 향한 인간 주체의 욕망은 끈질기게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위반하려는 법과 금지의 상징 질서는 내면의 여성성을 억압하고 이상적인 남성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를 계기로 촉발된 그의 억눌린 욕망은 상징계의 법과 금지를 벗어나 “제왕적 가부장”(Lesley Ginsberg 107)으로 군림하기 위해 타자의 생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파괴적 욕망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도착적

impulse increases to a wish, the wish to a desire, the desire to an uncontrollable longing, and the longing . . . is indulged.”(355)

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우일과 김종갑은 화자의 잔혹한 행위는 고양이 자체가 아니라 고양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을 겨냥한다고 언급하며 상징계의 질서를 넘어서려는 화자의 비뚤어짐을 다음과 같이 윤리적 선택으로 진단한다.

 삐뚤어짐이 자아내는 위법은 오직 질서에 어긋나기 위해서 행하는 매우 잔인한 악행인 동시에 상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의 공백을 향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일 수 있다. 삐뚤어짐은 ‘윤리적인 악’이라는 역설적 명제의 출현을 의미한다. 화자의 악행은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윤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 . . 화자의 모든 살인행위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구에 대한 주체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파괴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억압적인 구조이며, 또한 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스스로 근절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우일, 김종갑 55-57)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들이 아니라 이것들에 속한 이데올로기적 속성이고 화자의 폭력이 그것들이 체현하는 상징적 구조를 향하고 있다는 두 평자의 견해는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 해도 현실 속에서 화자가 파괴한 것은 고양이라는 ‘자식’과 아내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비뚤어짐의 욕망 실현을 “주체의 저항”(57)에서 유래하는 윤리적 행위로 보는 것은 정신분석의 욕망의 윤리를 지나치게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두 평자는 라캉의 일곱 번째 세미나 『정신분석의 윤리』(*The Ethics of Psychoanalysis*)를 토대로 “욕망에 접근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복무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선도 없다”(321)는 라캉의 말을 인용하여 정신분석의 윤리는 곧 전통적인 선악의 구분을 거부하고 “역설적이게도 악을 향하는 형태”(104)를 취하고, 공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욕망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주체가 된다고 언급한다. 라캉의 욕망의 윤리가 도착성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진술이고, 악의 속성을 지닌 포의 화자들이 근대적 이성이 지시하는 합리성에 반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이성의 질서를 마비시키는 새로운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이우일, 김종갑 49)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욕망의 윤리로 라캉이 언급하는 악의 의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자의 생명과 욕망을 파괴하는 사이코패스나 도착적 범죄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캉

이 정신분석의 윤리를 논하면서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프랑수아 드 사드(Francois de Sade)의 경우를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윤리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이상스(Jouissance)⁶를 향하는 욕망의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도착성을 정신분석 윤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지점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⁷

김용수가 적절히 언급한 것처럼, “도착은 타자의 결여를 부인하고 그 공백의 자리를 물신으로 채우는 구조”(72)로서 “타자에 대한 환상을 대상의 본질로 오인”(73)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실제에 대한 환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특히 “타자의 파괴될 수 없는 본질”(74)에 대한 근원적인 환상으로 나타난다. 사드는 타자의 실제적인 비어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혹독한 고문에도 파괴되지 않는 어떤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오인하는 것이다. 라캉이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정신분석의 윤리를 사드가 아니라 소포클레스(Sophocles)의 비극의 주인공인 안티고네(Antigone)를 통해 ‘승화’의 윤리로 제시하는 점도 도착성이 궁극적으로 정신분석이 지향하는 최종 윤리가 아님을 보여준다.⁸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드러내는 비뚤어짐의 욕망은 사드의 도착성에 가까운 것으로 그는 사랑하는 대상의 파괴와 지배를 통해 상징계의 법을 위반하려는 욕망을 추구한다. 오로지 법을 위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영혼의 파멸을 불사하고 욕망의 끝까지 가보려는 화자의 욕망은 사드의 경우처럼 죽음충동으로 이어지는 실제계를 향한 욕망이다. 따라서 그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⁶ ‘주이상스’는 라캉의 정신분석학 용어로 쾌락 자체가 고통으로 경험되는 ‘고통스러운 쾌락’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원적 금지 대상인 ‘물’을 향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쾌락원칙을 넘어 주체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고 경험하는 희열이나 향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⁷ 작크 밀레(Jacques-Alain Miller) 역시 도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perversion’을 프랑스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pere’를 향하는 것(pere-version)으로 읽음으로써 도착을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으로 읽는 시도를 경계한다.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에 호소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기제”(김용수 72 재인용)로서 여전히 억압적인 구조를 지니기에 진정한 전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⁸ 라캉의 논의에서 안티고네는 사드의 도착과 대조적으로 승화를 통해 정신분석의 ‘욕망의 윤리’를 구현한 인물로 제시된다. 안티고네는 조국을 배반하고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오빠를 처벌하려는 크레온(Creon)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속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따라 오빠의 시신을 묻으려고 시도한다. 안티고네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묻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고수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법의 금지와 위협 앞에서도 타자를 향한 금지된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통한 회한이 일면서도 . . . 그것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킬만한 이유를 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11)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상징계의 윤리와 도덕을 말할한다. 쾌락을 위해 일체의 타협 없이 “절대악으로 향하는 욕망을 가장 극단적인 지점까지 실현”(Lacan 197)한 사드처럼 이 지점에서 화자가 드러내는 욕망은 분명 상징계의 금지를 넘어 끝까지 가보려는 ‘욕망하는 주체’의 모습이다.

그러나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인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 집이 완전히 불타고 유일하게 남은 칸막이벽에 고양이의 형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상징계의 질서를 위반하고 넘어가려는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심리구조 모델에서 이성과 판단력의 토대인 자아(Ego)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격 성향의 이드(Id)와 도덕적 심판자인 초자아(Superego)에 동시에 지배된 분열된 주체의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플루토를 목매달아 죽인 이후 두 번째 고양이와 대면한 이후에는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려는 욕망보다는 대부분 양심과 죄의식의 근원인 초자아의 처벌에서 유래된 무의식적 공포에 지배된다는 점에서 그를 라캉식의 윤리적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III. 죄의식과 ‘징벌적 양심’으로서의 공포

브렛 지머만(Brett Zimmerman)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화자가 고양이를 목매달아 죽인 날 밤 원인 불명의 대화재가 발생해 집이 불타버린 사건을 계기로 화자와 고양이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된다(46). 제임스 가가노(James W. Gargano)는 이것에 대해 화자의 집을 파괴하는 불은 그의 “도덕적 붕괴”(175)를, 벽에 새겨진 목졸린 고양이의 형상은 그의 “지울 수 없는 죄”(175)를 상징한다고 언급한다. 이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화자는 더 이상 사회 규범과 윤리를 넘어가려는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고양이와의 관계도 뚜렷하게 역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화재 사건 전에는 고양이가 그를 피해 다니다 결국 죽임당하는 식으로 화자가 고양이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적 관계를 주도했다면, 화재 이

후에는 벽에 새겨진 죽은 고양이의 흔적을 계기로 초자연적인 처벌의 공포에 휩싸인 화자를 새로 등장한 두 번째 고양이가 끈질기게 쫓으며 끝내 교수형으로 이끄는 처벌의 관계를 주도한다. 물론 플루토를 대신하여 새로 등장한 고양이가 플루토의 유령이라거나 실제로 화자를 처벌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그 고양이가 직접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화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식이 빚어낸 초자연적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서두에서 플루토를 소개한 뒤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의 화신”(9)이라고 언급했던 아내의 말을 덧붙이면서 그것은 미신을 믿는 아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고 자신도 “그 말이 우연히 떠올라서”(9) 쓴다고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그의 무의식에 깊이 파고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화재 현장에서 칸막이벽에 새겨진 고양이의 모습을 본 순간 충격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벽에 새겨진 형상을 즉각 플루토의 “환영”(apparition 11)으로 인지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가까스로 냉정을 되찾아”(11) 그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지만 여러 날 동안 플루토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점은 그가 미신이라고 치부했던 아내의 말이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초자연적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칸막이벽에 새겨진 형상이 그가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목에 올라미가 걸린 고양이였는지도 확실치 않다. 사람들은 그저 “이상하군!” “특이하네!”(11)라고 반응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화자가 불탄 벽에 새겨진 모종의 형상을 자신이 목매달아 죽인 고양이와 동일시하게 된 것은 스스로 저지른 악행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두 번째 고양이에게 완전히 지배되고 광기어린 공포에 이르게 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자신이 의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가 교수형을 하루 앞두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글의 첫머리에 언급되어 있듯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8) 욕구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세상 앞에 내놓을 “가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일련의 사건들”이 자신을 “공포에 질리게 했고, 고문했으며, 파괴했다”(8)고 언급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공포라기보다는 기괴한 사건으로 보이겠지만 자신에게

는 공포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가 경험하는 공포는 물론 플루토와 여러모로 흡사한 두 번째 검은 고양이가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 돌아온 플루토의 혼백이라거나 그밖에 다른 초자연적 존재로 인지하는 데서 나오는 주관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똑같은 고양이를 두고 그의 아내는 플루토와 닮았다는 이유로 연민과 애정을 느끼는 반면, 그가 극도의 혐오와 신경증적인 공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고양이가 그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초자연적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좌절된 남성성으로부터 비롯된 화자의 폭력적 성향이 음주를 계기로 자식처럼 기른 고양이의 눈을 산채로 도려내는 악행으로 표출된 뒤부터 상징계의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욕망과 그것을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초자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플루토의 눈을 도려낸 다음날 취기가 진정되어 이성을 되찾은 화자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받은 공포 받은 회한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10)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감정도 “기껏해야 미약하고 모호한 감정이었다”(10)고 서술한다. 이 단계에서 화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자책보다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의 무한한 자비를 넘어선 곳에”(11) 자신의 영혼을 던져버릴 만큼 법과 질서를 벗어나려는 욕망하는 주체의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이드에서 유래된 욕망이 자아의 현실 원리와 초자아의 감시를 압도한 채 금지된 욕망을 향해 거침없이 분출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형을 앞두고 자신을 궁극적 파멸로 이끈 이 사건을 진술하면서 화자는 “이 저주받을만한 잔인한 악행을 써내려 가노라니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대며 몸이 떨려온다”(10)고 진술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초자아의 처벌에서 야기된 신경증적 공포에 지배된 모습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의 심리구조 모델에서 양심과 죄의식을 관장하는 초자아는 쾌락원리에 지배되는 이드와 더불어 대부분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다. 초자아는 이상과 가치, 금지와 명령의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심리적 대리자로 자아이상과 양심이라는 하위 체계를 통해 칭찬과 보상의 형태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아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죄의식이라는 고통스런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드에서 유래되는 인간의 공격적 욕구, 또는 파괴적 본능은 초자아에서 발생된 죄책감에 의

해서 통제되며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를 전후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가져올 애정의 상실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관찰을 통해 초자아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The Ego and the Id* 49-51),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드러내는 죄의식과 그로 인한 신경증적 공포 역시 이 패턴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화재 현장의 남은 칸막이벽에서 죽은 고양이 형상을 목격한 화자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의 통제를 벗어나 비뿔어짐의 충동에 이끌려 금지된 욕망을 추구했지만 종교와 윤리적 가치를 담당하는 초자아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성이 두드러졌던 그는 사드처럼 쾌락을 위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금지된 욕망을 추구할 만큼 강한 정신력도 없다. 그는 벽에 목졸린 고양이의 형상이 새겨진 경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아의 이성을 회복하려 하지만 그의 “양심을 납득시키지는 못하며”(12) 이후 고양이의 환영에 사로잡힌 채 “회한은 아니었지만 회한 비슷한 모호한 감정”(12)이 생겨났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정신이 초자아의 처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플루토와 비슷한 고양이를 찾아 술집을 기웃거리게 된 것도 이러한 죄의식을 보상해줄 대체물을 찾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완전히 취한 채 멍하니 앉아 있던 화자의 시선에 들어온 술통 위의 검은 고양이는 데이비드 레버렌즈(David Leverenz)의 언급대로 이미 죄의식과 처벌의 공포에 사로잡힌 화자의 강박관념이나 “징벌적 양심”(119)이 투영되어 플루토와 똑같이 보이게 된 환영적 존재일 수도 있다.

화자가 술집에서 데려온 검은 고양이에 대해 점점 비이성적인 혐오와 공포를 갖게 된 것도 그 고양이의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처벌을 상기시키는 양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데려온 다음 날 화자는 그것이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의 가슴에 있던 흰 반점이 점점 “교수대”(14)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화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단순한 망상이자 환상일 뿐이라고 다짐하면서 과거 악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려 하지만 교수대의 형상이 주는 공포에 압도당한 채 서술하는 다음 진술은 그 공포감이 신경증적 증상으로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제 입에 올리기에든 몸서리쳐지는 물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그 고양이가 혐오스러웠고 무서웠으며 감히 할 수만 있다면 그 괴물을 죽여 버리고 싶었다. 그것은 이제 소름끼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의 이미지, 아, 공포와 죄과의, 고뇌와 죽음의 음울하고 무시한 형구인 교수대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It was now the representation of an object that I shudder to name—and for this, above all, I loathed, and dreaded, and would have rid myself of the monster had I dared—it was now, I say, the image of a hideous—of a ghastly thing—of the GALLOWS!—oh, mournful and terrible engine of Horror and of Crime—of Agony and of Death! (14)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헐떡거리듯, 차마 입에 떠올리기도 어려운 듯 간신히 흰 반점의 정체가 교수대 형상이었노라고 언급하는 화자의 모습은 초자연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서술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중임을 보여준다. 화자의 아내에게는 두 번째 고양이의 한 쪽 눈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고, 배의 흰 반점은 플루토와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에 불과하지만 화자에게 전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가시적 징표로서 작용하고 후자는 초자연적 처벌의 상징으로서 신경증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똑같은 고양이를 두고 화자와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은 플루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화자의 죄의식과 그 처벌에 대한 공포가 그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의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버렌즈의 지적대로 화자가 플루토의 목에 걸었던 폭력의 올가미는 칸막이벽의 목졸린 고양이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두 번째 고양이의 흰 반점에서 교수대의 상징으로 변형된 뒤 궁극적으로 화자를 교수대로 보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서술동안 내내 화자를 “절대적 공포”(119)로 몰아넣는 추상적인 올가미로 작용한다.

화자가 두 번째 고양이에 대해 갖는 이러한 공포는 그가 미신이라고 일축했던

아내의 말처럼 고양이가 “변장한 마녀”(9)라든가 자신의 죄를 응징하러 온 플루토의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 심판자로서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아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고양이가 실제로 그런 초자연적 존재로서 나타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공포심은 그의 죄의식이 빚어낸 환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자아의 분별력과 이성적 판단을 잃은 화자에게 두 번째 고양이는 그가 도망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시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 고양이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혐오뿐만 아니라 하찮은 고양이에게 지배당하는 데서 오는 수치감으로 더욱 좌절된 그의 남성성은 그로 하여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유일하게 남은 약자인 아내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 광기어린 분노를 표출하게 만든다. 따라서 지하 계단에서 고양이 때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폭발”(14)로 고양이를 죽이려다 이를 말리는 아내를 도끼로 내리찍어 살해한 것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정의 약자를 통해 좌절된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화자 내면의 이드의 충동이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의 광기어린 행동은 죄의식에서 발원한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초자아와 이드의 두 심급이 화자의 심리에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고양이에 쫓기다 광기 속에서 아내 살해에 이르게 된 화자를 이우일과 김종갑이 언급한 대로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금지된 욕망을 향해 나가려는 “윤리적인 악”(55)을 구현하는 욕망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내를 살해하고 벽 속에 시신을 감춘 뒤에도 화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죄책감 대신 고양이가 집에서 사라진 데서 오는 위안과 해방감을 느낀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고문자”(my tormentor 16)가 사라지자 그는 “살인을 했다는 중압감이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데도 편안히 잠 잘 수 있었다”(16)고 서술한다. 실제로 그는 벽 속에 시신을 완벽하게 감추고 만족스러워하며 경찰관의 수색을 완벽하게 피했다는 사실에 승리감과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죄와 처벌을 집요하게 상기시키던 심판자로서의 고양이가 시야에서 사라진 데서 느끼는 일시적인 해방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감추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된 순간 자신을 파괴하려는 알 수 없는 충동에 다시 휩싸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The Ego and the Id*, 1923)

에서 특정 형태의 강박 신경증의 예를 들어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에 대해 초자아의 처벌이 작동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 경우 죄의식의 바닥에 깔린 자기과파적인 억압된 충동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 초자아는 자아보다 자신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 이드와 더 협력하게 된다(51). 프로이트는 또한 『문명과 그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1930)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기 고통과 자기 파괴 행위로 표현되는 무의식적인 처벌에 대한 욕구를 초자아의 감시에서 유래된 죄의식과 동일시한다(134).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자신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려는 충동은 프로이트가 강박 신경증 환자를 통해 관찰한 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무의식에 내재한 초자아는 시신을 감추던 주도면밀함과 경찰을 따돌린 자아의 이성을 뚫고 화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드에서 유래된 “아무 이야기나 마구 지껄여대고 싶은 격렬한 욕망”(17)을 부추겨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게 만든다. 화자는 수색을 마치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려는 경찰들을 향해 승리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닉한 벽을 상기시키며 막대기로 내리치는데, 그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던 심판자의 무서운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⁹. 화자는 그것이 “지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울부짖음이었다”(17)고 고백하지만 내면의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범죄 현장을 폭로한 것은 고양이기가 아니라 화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초자아의 ‘징벌적 양심’에서 나온 내면의 목소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살해한 노인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심장 소리에 이끌려 스스로 범죄를 폭로한 「고자질쟁이 심장」의 화자의 경우처럼 승리감에 도취한 화자의 이성을 교란시킨 내면의 충동은 자신의 죄를 폭로하려는 초자아의 작동으로 이루어진 처벌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식과 징벌적 양심이 화자의 무의식에 내재한 이드의 파괴적 충동과 협력하여 화자 스스로를 초자연적 처벌이 아니라 교수대라는 상징계의 처벌로 이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⁹ 시신을 묻을 당시 벽 속에 숨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기가 그의 신호에 응답이라도 하듯 소리를 낸 것인데, 이후 경찰에 의해 벽이 제거되고 드러난 고양이는 아내의 시신 위에서 피 묻은 입을 벌리고 불같은 외눈으로 화자를 바라봄으로써 그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고 처벌하는 초자연적 심판자로서의 공포감을 부여한다.

IV. 나가며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1843년 이 작품이 발표된 이래 일반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끼로 아내를 살해한 범죄로 사형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름 없는 화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복잡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글을 읽어줄 가족도, 독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굳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려는 의도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내 살해와 교수형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과정을 자기 자신과 그밖에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려는 시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그의 진술은 때때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자기중심적인 측면을 보임으로써 그를 ‘믿을 수 없는’ 화자로 만든다. 그렇다 해도 그가 저지른 잔혹한 동물 학대와 아내 살해라는 범죄 행위는 작품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둘러싼 그의 심리적 반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기에 독자는 그의 진술을 통해 인간 내면에 깃든 도착적 욕망과 무의식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내면의 여성성을 억압하고 19세기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성에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남성성을 수행하며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위반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과, 그 욕망을 도착적 형태로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플루토를 죽인 날 밤에 일어난 화재를 계기로 그는 어떤 대가와 고통을 무릅쓰고 금지된 욕망을 추구하려는 라캉식의 욕망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라캉의 정신분석 윤리가 긍정하는 욕망은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죄의식과 초자아의 논리를 넘어서서 순수욕망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위반의 욕망이다. 근원적 욕망의 대상인 ‘물’은 상징계 너머에 존재하기에 근본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무한한 쾌락의 환상을 생산하기에 주체는 현실의 쾌락원리를 넘어 극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타자의 생명을 파괴하는 도착적 방식으로 욕망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이던 「검은 고양이」의 화자는 ‘죄’를 저지른 이후 발생한 상징적인 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죄의식과 처벌의 공포에 사로잡혀 광기에 이르고 스스로의 범죄를 폭로하는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두 번째 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공포로 움츠러들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화자의 모습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초자아의 죄의식이 부추기는 자기 파괴의 충동에 사로잡혀 광기에 이르게 된 신경증 환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아내 살해 후 주도면밀하게 시신을 숨기는 모습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자아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와 관련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17) 강렬한 충동은 양심과 도덕성을 관장하는 초자아와 공격적 성향을 지닌 이드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자기파괴적 충동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심리구조 지형도에서 초자아의 대부분은 이드와 마찬가지로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신을 숨겨 둔 벽을 두드린 행위는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두 심급의 활동으로 보인다. 즉, 무의식 영역에서 작동하는 두 체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자아의 이성적 판단과 간교한 위장을 뚫고 자신의 범죄 현장을 고발함으로써 스스로를 상징계의 처벌에 맡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검은 고양이」의 화자가 「고자질쟁이 심장」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사이코패스나 완벽한 ‘악마’가 될 수는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포가 「검은 고양이」의 화자를 통해 탐색한 인간 정신의 “도착성” 혹은 “비뚤어짐”(Perverseness 10)은 상징계의 법과 질서를 넘어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도착적 성질을 띠면서도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응징하려는 내면의 강력한 충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가 『자아와 이드』에서 체계화한 인간 심리구조의 복잡한 갈등과 충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Beynon, John. *Masculinities and Culture*. Trans. Insuk Im & Miyoung Kim. Seoul: Korea UP, 2011. Print.
- [베이논, 존. 『남성성과 문화』. 임인숙, 김미영 공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 Bliss, Ann V. “Household Horror: Domestic Masculinity in Poe’s ‘The Black Cat.’” *The Explicator* 67.2 (2009): 96-99. Print.
- Cecil, L. Moffitt. “Poe’s Wine List.” *Poe Studies* 2.42 (1972). Print.

- Freud, Sigmund. *The Ego and the Id and Other Works*. ed. James Strachey. S.E. Vol. XIX (1923-26). London: The Hogarth Press, 1999. Print.
- _____.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and Other Works*. ed. James Strachey. S.E. Vol. XXI (1927-1931). London: The Hogarth Press, 1999. Print.
- Gargano, James W. “‘The Black Cat’: Perverseness Reconsidered.”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2.2 (1960): 172-78. Print.
- Ginsberg, Lesley. “Slavery and the Gothic Horror of Poe’s ‘The Black Cat.’” *American Gothic: New Inventions in a National Narrative*. Iowa City: Iowa UP, 1998. 99-128. Print.
- Hare, Robert D.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Print.
- Hester, Vicki, and Emily Segir. “Edgar Allan Poe: ‘The Black Cat,’ and Current Forensic Psychology.” *The Edgar Allan Poe Review* 15.2 (2014): 175-93. Print.
- Kim, Yongsu. *Jacques Lacan*. Paju: Salim, 2019. Print.
[김용수. 『자크 라캉』. 파주: 살림, 2019.]
- Kim, EunHyung. “Edgar Allan Poe’s ‘The Black Cat’: Domesticity, Masculinity, and Horror.”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24.1 (2017): 49-73. Print.
[김은형.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가정과 남성성, 그리고 공포」. 『근대영미소설』 24.1 (2017): 49-73.]
- Lacan, Jacques.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Norton, 1992. Print.
- Lee, Wooil, and Jonggab Kim. “Edgar Allan Poe and Thinking of Emptiness – Emptiness and Ethics in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and ‘The Black Cat.’”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in English* 21.3(2017): 37-62. Print.
[이우일, 김종갑. 「에드거 앨런 포우와 공백의 사유: 「어셔가의 몰락」과 「검은 고양이」에 나타난 공백과 윤리」. 『19세기 영어권 문학』 21.3 (2017): 37-62.]
- Leverenz, David. “Spanking the Master: Mind-Crossings in Poe’s Sensationalism.” ed. J. Gerald Kennedy. *A Historical Guide to Edgar Allan Poe*. New York: Oxford UP, 2001. 95-127. Print.
- Ma, Kyoung Hee. *Hegemonic Masculinity and Changing Lives of Men*.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7. Print.
[마경희.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Meyers, Jeffrey. *Edgar Allan Poe: his life and legac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2. Print.
- Moreland, Clark T., and Karime Rodriguez. “‘Never Bet The Devil Your Head’: Fuseli’s The Nightmare and Collapsing Masculinity in Poe’s ‘The Black Cat.’” *The Edgar Allan Poe Review* (2015): 204-20. Print.

- Poe, Edgar Allan. *The Tell-Tale Heart and Other Writings*. New York: Bantam Classic, 1982. Print.
- _____. “The Imp of the Perverse.” *The Works of the Late Edgar Allan Poe*. New York: Clinton Hall, 1850. 353-359. 1 Dec. 2017. Web. 10 July 2021.
- Zimmerman, Brett. *Edgar Allan Poe: Rhetoric and Style*. Montreal: McGill-Queen’s UP, 2005. Print.

김선옥 (원광대학교 / 교수)

주소: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선옥교수실

이메일: soyd66@naver.com

논문접수일: 2021. 09. 30 / 심사완료일: 2021. 11. 06 / 게재확정일: 2021. 11. 10